BR6060 무공해 에너지라고요? 17-03-17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나 언론 매체는 지난 10여 년간 “기후 변화”, “대기 오염”, “온상 가스”, “오존층 훼손” 등등을 개탄하면서 녹색 에너지 생산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유럽 제국은 이런 혁신 에너지 생산에 과감한 정책을 폈습니다. 즉 풍차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녹색 에너지를 향해 속도를 내지 않는 미국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영리 연구기관인 에너지 연수소 (Institute of Energy Research)가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럽 제국들이 소위 무공해 정책을 차근 치근 포기하고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색 에너지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은 전기 요금이 미국의 3 배에 이르렀습니다. 3배로 오른 전기세 때문에 중산층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치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천연 가스를 태워 발전하던 것을 비교적으로 공해가 적다고 생각했던 나무 쪼각을 태워 발전을 했는데 나무쪼각을 태우는 공해가 천연가스나 석탄을 태울 때보다 공해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런 나무 쪼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니 소비자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합니다.

오스트랠리아에서는 녹색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국가 차원에서 녹색 에너지를 적극 추진했더니 전기 요금이 백만 왓트시간 당 (1 megawatt hour) $100 하던 것이 $10,000로 푹등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랠리아는 문을 닫았던 천연가스 발전소를 재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완전 녹색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풍차 발전을 시작했는데 발전 비용이 예기치 않게 너무 많이 들어서 풍차 발전을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오스트랠리아 에너지 연구소에 의하면 발전량의 40%를 풍차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전기 시용료가 너무 비싸게 되어 많은 공장들이 외국 특히 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합니다. 아시아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료금뿐만 아니라 임금, 세금, 복잡하지 않은 규제등도 함께 이전 이유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 10년 동안에 녹색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보조금만으로도 7,5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전기료금은 배로 상승했습니다. 높은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일반 생산가의 증가를 의미 합니다. 높아진 생산가는 강철산업, 자동차 산업, 경공업분야, 농림산업, 및 기타의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게 막대한 경쟁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유럽 연합과 오스트랠리아는 미국도 녹색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녹색 에너지 산업을 유럽 연합 정도로 추진한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6,000억 달러를 더 소비해야 한다는 연구를 미국 상공회의소가 산출했습니다. 미국도 녹색 발전산업을 지원했지만 그런 사업은 큰 실패 결과를 낳고 말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녹색 에너지 추진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